

## 2015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15. 3. 30. 14:00~
- 장소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층 교육장
- 참석 : 송석두(이사장), 운영우(이사), 고옥심(이사),  
김상기(유제열이사대행), 장기수(이사), 박철웅(이사),  
송경(김혜원이사대행), 이종원(이사), 이장희(이사),  
송태화(이사), 강정길(이사), 허영(감사)

### 사회 이재기행정지원실장 이재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이재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이사장님 이하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단법인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2015년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를 위한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정관 제17조에 의해 재직 이사 12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사회에 앞서 먼저 오늘 이사회를 주재해 주실 이사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현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을 역임중이신 청소년진흥원 송석두 이사장님이십니다.

소개는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장으로 재직중이신 허영감사님이십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으로 재직중이신 운영우 이사님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교육청 학생생활 지원과장으로 재직중이신 고옥심 이사님이십니다.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재직중이신 유제열이사님의 위임을 받아 김상기 아동청소년계장님이십니다. 호서대학교 청소년 문화상담학과 교수로 재직중이신 김혜원이사님의 위임을 받아 천안시 청소년 수련원 송경 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으로 재직중이신 이종원 이사님이십니다. 충청남도 학교 운영위원회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신 이장희이사님이십니다. 본원 원장으로 재직중이신 장기수 원장님이십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반갑습니다.

사회 이재기행정지원실장

충청남도 사회복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신 송태화 이사님이십니다.

이사 송태화

안녕하세요.

사회 이재기행정지원실장

법무사강정길사무소 대표로 재직중이신 강정길 이사님이십니다.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 원장으로 재직중이신 박철웅 이사님이십니다.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전무이사로 재직중이신 허철회감사님께서서는 오늘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푸른노무법인 대표인 황귀남 노무사님은 다른기관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상님께서 청소년진흥원의 2015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네, 회의는 품격 있게 하되,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 앞서 소개를 따로 해주시려고 했는데 청소년진흥원 이사장 송석두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개회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201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봄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고 여건임에도 여러 이사님께서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 다시 한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 말그대로 충청남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동할수 있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귀중하면서도 중요한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각 기관 각 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회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안건이 4건, 그리고 심의의결안건이 5건입니다. 먼저 보고안건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심의의결안건 5건 일괄 상정해서 안건별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안건으로서 제1호 사무실임(전)대차계약 연장 및 추가 임대차계약 체결, 2호 신고지원 인력(사업계약직) 1명 증원, 3호 2015년 도 청소년팀 자체감사 결과, 4호 2014년 도의회 행정지도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 안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고안건 4건에는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그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장기수(원장)

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본원 원장 장기수입니다. 바쁜 일정에서 참석 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건 제1호입니다. 사무실 임(전)대차 계약 연장 및 추가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쓰고있는 법인 사무실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사무실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있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공간을 유지 하는 연장안건과 하나는 추가 임대차 계약건입니다.

올해에 학교밖청소년지원법령이 지정됨으로 써 올해에 15개 시군뿐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도 학교밖지원센터인 꿈드림 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개원과정에서 갖춰야 할 추가 필수공간을 추가 확보해서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2번째 보고의건 2호입니다 신고지원 인력 관련해서 사업계약직 1명을 증원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병대 캠프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지면서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자체 채용을 해서 광역시.도에 인원을 배정한 사안입니다.

저희도 그...이송희 만 20세 충남지도사를 배정받아서 인증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의건 3안입니다 2014년도 청소년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평은 법인 정관,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직원의 2014년에 원장과 실센터장 직원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문제라든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들, 운영이라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 및 주의를, 규약관련된 것에서는 규약 상정을 통해 안전을 처리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4년 도의회 행정지도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을 받았습니니다.



첫 번째가 청소년 국제교류사업대상자 공정한 선발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청소년의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하는 기능좀,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3번째가 공정한 문화탐방 대상자선발, 4번째가 인터넷 중독 예방 전문가 운영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주셔서 그 관련된 지적에 대한 처분사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유인물로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국제사업관련해서 도 의회에서는 시·군에 골고루 좀 학생들이 갈수 있도록 배정해달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대상을 15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선발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안·아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50%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반정도는 천안·아산에서 배치할 했고 실제적으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집단에서는 응모자가 많이 않은 한계점이 있었지만은 올해에 관련해서는 15개 시·군에 가급적이면 의무적으로 했다고 보고요, 아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어려운 청소년, 흑시라도 1,2명이라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서 의회의 지적사항을 충족시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 전문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 중독 예방 전문가 양성한 이후에 이분들이 자원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좀 더 기여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제안을 주셔서 그거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양성이후에도 저희가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교육이후에 진흥원과 15개 시·군에 인터넷 중독관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협업 할 수 있는 과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조건상 쉽지 않지만은 양센타별로 올해 정책과업을 선정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과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 된다 하면은 그 전문인력을 채용이 어렵다 한다면은 내년 일정정도 예산을 협업관련해서 정책개발비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관중에서 유능하신분들을 모셔다가 몇 가지 팀을 만들어서 상근은 아니지만은 자문을 받아가면서 몇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희망포럼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도

록, 만들도록 확정을 했고요, 여러 가지로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송석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가지 보고안에 대해서 일괄 저기 음 장기 수원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이사님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조언을 주실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일동

없습니다. 없습니다.

#### 이사 송태화

금년도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에 어디어디 갑니까.

#### 이사 장기수(원장)

베트남, 중국 그 매년 갔던 데가 지속적으로 교유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체사업이구요 예를 들자면 저희 사업중에서 자체 사업이 있구요 하나는 도에 해외교류팀에서 그해에 진행되는 사업이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베트남, 중국하고 예를 들자면 서울시와 교류라든지 그해에 도에 해외교류팀에서 결정되는 사업중에서 저희한테 청소년에 관련되는 사업은 따로 주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 이사 윤영우

국제 통상과에서 하는 사업을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결정이 되면 꼭 상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그 안배라는 것이 합리적인 기분을 잘 만들어주세요. 모집단이 있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기준과 원칙이 명백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강제적인 15개 시·군에, 산술적인 평균을 낼 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모집단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많은 응모가 있을 것이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놓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 때 상당히 고민을 하셔서 정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고 인기가 골고루 있고 하고 한다면 전체 모집단 대비 쿼터를 정해놓고 2년, 3년 주기로 돌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경우에 따라서 행정을 할 때도 이런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예,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종원

예, 국제교류가 실제 청소년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이사 장기수(원장)

50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사 이종원

천안 아산 지역이 청소년 인구가 제일 많습니까?

이사 장기수(원장)

천안·아산 지역이, 충남에서 천안·아산 지역이 청소년인구가 50에서 60%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15명 중에서, 아,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한계가 있는게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외부 면접심사위원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또 천안·아산에 능력 있는, 자기 역량



개발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 점수가 높는데 강제적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컷트를 뒤서 애초에 선발을 할 때 애초에 그 조건들을 좀 명시해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 이사장 송석두

글쎄 그러면서 아까 제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달라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모집단이 커야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아 아니한말로 여러 가지 스펙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으로서의 한 능력 있는 그런 친구들도 또 어딘가에서 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기회가 던져 도외시 되거나 그런 할 수 있는 시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막상 응모를 해서 같은 점수를 매겨놓고 거기서 탈락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사전에 어떻게 그, 배려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 의견을 들어서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시구요.

#### 이사 장기수(원장)

예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이사 교육심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건지.

#### 이사 장기수(원장)

음 저희가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하구있구요.

#### 이사 교육심

누구나, 누구나 해당될수 있는건가요? 아 예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사 장기수(원장)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구요 자체 홈페이지라든지 수련관 수련시설이 시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교육청에서 홍보를 협조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워낙 저희가 도단위로 하는데 15명 정도를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런 어려움도 조금 있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여러분들 의견 들어서 어쨌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기회가 적고 어려운 지역, 사람을 좀 고려해서 뽑을 수 있도록, 개인이, 능력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기회가 아니여도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게 좀 배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음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회의 말미에 심의한 안건 이후에도 보고안건 우리 이사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우리 저기 진흥원 운영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심의의결안건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괄상정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건별로 의견을 듣고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호 2014년도 사업실적 승인안, 2호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3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호 정관 일부개정안, 제5호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일괄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예 부의 안전 첫 번째 안전입니다. 2014년도 사업실적 승인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게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해당 실센터장 으로부터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2014년도 결산 감사 및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2014년도 저희 진흥원 수상내역에 대해서 2가지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256개 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평가에서 저희 충청남도 상담복지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충남이 갖는 여러 가지 청소년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밖 지원 사업관련해서 우리가 교육부장관 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구요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과 충청남도청소년 교육지원청이 협업을 통해서 학교밖부분에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가지 보고를 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서 수입액은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요약했습니다. 29억5천만원이 수입이 있었구요 국비보조금이 10억 2천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 천3백만원, 수탁사업수입금이 2억7천3백만원, 자부담수입금이 4천5백만원, 도비출연금이 2억 1천8백만원해서 기타수익은 7천9백만원 입니다.

지출액은 수익액 대비 28억9천3백만의 지출이 있었구요 집행잔액으로는 5천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반납액은 3천8백만원, 이자액은 천이백만원, 이월금 6백만원.

반납액 관련해서는 국도비 매칭 비율이 있고 국도비 관련해서 잔액이 수치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반납액이 많지만은 사업별로 크지 않은 반납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부채 현황은요 자산은 6억 6천3백만원이구요, 부채는 1억 4천4백만원, 자본은 5억 천9백만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 예를 들자면 카드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해에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여



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감사보고 관련해서는 오늘 허영 감사님과 허철희 감사님이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허철희 감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모친상이 있어서 서면으로, 어 저희가 사전에 준비가 안된 관계로, 아침에 연락을 들어서 서면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대체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사유는, 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여분을 일반 운영비 및 사업비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2015년 총예산은 비교증감은 1억4천3백만원의 증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증액이 8천8백원이 증액 되었구요 타기관 사업증액이 4천2백만원, 반납금증액이 2천1백만원, 기타증액이 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세출관련해서 개략적으로 큰 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증액분이 약 천여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5천 7백만원에 사업조정이 있었구요, 사업조정 내역을 보시면은 청소년통합 지원체계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폭력대응 솔리언포래상담사업, 청소년위기에방 영상물제작 신규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5억 5천7백만원의 조정 사유가 있어서 조정을 줌 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5천 5백만원의 변동내역이 있습니다. 변동내역을 보면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사업, 인증제상근심사원 및 안전관련 사업,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청소년정책모니터링단 운영, 기타 해서, 관련된 변동이 있어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 하였습니다.

성문화센터 사업비에 약간의 증액이 있었구요, 반납금으로는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2천1백7십7만2천원의 반납금 내역을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별책 2번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정관일부 4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관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률적

용어의 변경에 있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라는 용어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안이구요 법률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바꾼 내용입니다. 2번째는 저희가 이자수입 발생하는거에 대해서 재단법인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관에 더하는 내용을 해서 2가지를 정관개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첫 번째가 법률 용어 변경이고 두 번째가 법인 이자분을 기본재산재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인 정관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5호 안전입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53쪽입니다.

우리이사님들 잘아시겠지만은, 어 지금 우리 청소년기관 한국사회가 안전문제에 많은, 국가나 지역사회나 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비를 해야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도 2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여가부에서 운영하는데 정원이 10명, 그리고 3개팀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2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지원 관련해서 전담팀이 없기때문에 전담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변동사항은 저희가 현재 직원이나 기타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가부의 충족요건을 맞추고 신규로 2명을 한명 파견 받고 하나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서 신고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을 확보하고 신고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고제도를 원활하게 지원해서 진행하는 신설팀을 신설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요 5가지 짚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배포해드린 유입물 보시고 질의해주시면은 자세한내용은 제가 일일이 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건에 안전에 대해서 일괄해서 상정하였고 보고까지 각호별로 의견 묻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 2014년도 사업실적 승인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참고해주시고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사 이종원

예,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올해에도 계속되는 건가요.

이사장 송석두

예, 답변해주시죠 마이크 들고 자리에서 말씀해주시죠.

이사 이종원

예, 저희가 우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시다시피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아무래도 세종시가 워낙 그러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청소년현장을 저희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긴밀하게, 진흥원에 오신분들과 밀접하게, 또 학교밖청소년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이 갑자기 또 학교밖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협조를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년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뭐 자문을 해드릴 수도 있는거고 또 사업추진까지 긴밀하게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장기수(원장)

예, 저희가 우리 청소년정책연구개발원이 서울에 있다가 아시다시피 세종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종원이사님이 말씀 하셨듯이 나사렛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던 분이 원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저희가 실센터장님과 직접방문을 드려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정책 능력에 대한 배양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정책적 과제를 뽑기도 하고 특히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청소년정책개발연구원 과제 중에서 특히 지역사회와 협업할 수 있는 과제를 있다하면 충남으로 선정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 과정에서 학교밖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저희가 정책사업도 하지만은 현장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우



리 제안을 드렸고, 원장님께서 직접 흔쾌히 답변을 해주셨고, 저희 청소년 어 지도자대회 때도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시면서 기관이 세종시로 왔기 때문에 세종시와 충남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 말씀 주셔서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 기도 하고 협업과제를 함께 저희예산을 좀 편성하고 정책개발원도 그 예산부분에 항상 고민이 많으시다 해서 과제를 선정해서 이사님이 주신 말씀들을 올해 안에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 교육심

예 학교밖청소년 저희 그 학교에서 그 위탁한 아동을 그 주소지라든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떤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 이사 장기수(원장)

어 저희가 정말 그전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항상 그런 시선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협조관계가 잘될 때도 있지만은 지원청하고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학교밖청소년 관련된 지원 법률이 2014년에 통과되고 2015년 의무적으로 모든 시·군과 광역에 두게 되면서 제도적으로 협업을 하게 아예 법률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는 아예 시·군을 보장하는 홍보물이나 그런 것을 아예 하고 있는.

### 이사 교육심

어 그 14세 미만, 보호자들이 받아 들여도 본인이 어떻게 싫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면은 상당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모호하다. 아이들이 퇴학을 하기 전에, 미리. 아이들에게 확인을 받기는 하는데 안할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어떤 방법이 있으셨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미원

예, 이사님 말씀하신것처럼 학교밖청소년 발굴이 저희들 사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구요 그것을 잘 해내면 나머지 사업프로그램은 워낙 잘 가고 있으니까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와 연결을 해서 우리 숙려제 아이들에게 저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교육청에도 도움요청을 드리지만 저희가 각급 학교에 가서 홍보를 다 합니다. 아이들이 자퇴를 결정하는 순간에 아이들에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밖청소년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보호관찰소라든가 경찰라인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위기청소년을 돕는 기관에 저희가 직접 다 방문을 해서 안내를 다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또 더 좋아지는 방법은 여기 처음 왔던 2,3명이 저희하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좋아서 친구를 소개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여기저기 소문이 나고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충남 15개 시·군에서 다 학교밖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송석두

예 첫 번째 심의안건중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첫 번째 안건 2014년사업실적승인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과 이 서류를 만드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너무 나열식으로 형식적인 양센타 업무가, 흔히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범할수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7쪽에 1388청소년지도사 운용하면 1,410만원을 가지고 회의를 두 번 하고 또 회의를 하고있고, 지원단운영이 회의

하고 이런 것이 주요 업무인지 지금 사업하고 평가를 입체적이고 건설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질적인 평가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업별.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 관련해서가 아니고 일하는 방식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이 사업을 왜하냐면 이것을 돈을 언제, 이 돈을 쓸려고 일을 하는게 아니라, 그 돈을 써서 뭘 할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목적이 제대로 발생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일체 없어요.

뭘 했다는건 있는데 그걸 할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이벤트적인 1~2건에 불과합니다. 이 일이. 그거를 보고서만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일을 그렇게 하는게 태반이라서, 일을 하면서 그렇다고 치면 이 단위 사업이 과연 적절하냐.

이 사업을 할 때도 형식상 행정지원실,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3개 실센타로 되었는데 이렇게 편재를 하는게 아니고 이 청소년진흥원에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사업이 첫 번째부터 시작되어 1번부터 시작해서 30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실센타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디가 들어갈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뒤에는 그러면서 가짓수가 구지 효과가 없고 답습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안들어가는 이런건 점검을 하고 실제 집중해야 될 일에 질적평가와 성과, 평가를 감안한 평가를,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하려하는데 꼭 외부평가기관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내부 하면서 이게 뭘 하려고 목적을 갖는 사업인지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몇 명이 모였다, 회의를 몇 번했다, 사업비를 얼마를 집행했다 이것만 있어요.

편재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행정지원실 굳이 편재를 하자면 뒤로 가야 되고 중요한 진흥원에 핵심사업이 뭘지부터가 우선순위가 나와야죠. 너무 지금 지극히 형식적인 사업보고서가 되어있고 이 보고서를 잘못하면 제가 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리고 진흥원에 정체성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듭거듭 다시한번 좀 보시고 새로운 원장님과 실센타장님 체제하에 이거 좀 정돈해주십사.

가짓수가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인력에 청소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이 꼭 여기밖에 할 수 없는 주요 핵심 기능들을 깊이 있게, 질적으로, 고도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들을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있어 보고서 잘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없네, 돈이 없네 인력이 없네 이쪽으로만 가는데 그 얘기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흥원에서 1번, 2번, 3번, 4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핵심기능을 놓치는데 돈이 없고 예산이 없고 인력이 없다. 그건 다 지원을 해 드리는거예요. 핵심기능이 아닌걸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거꾸로 공급자 중심으로 찾자는게 아니고 꼭 필요한 기능에 좀 몰두를 할 수 있게끔 편제를 그렇게 하시고 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종원 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청소년정책연구원이 특히 세종시로 이전을 하셔서 이사회를 제가 나와서 쪽 보강, 새롭게 팀구성을 할 때 강력히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중앙과 연계된 참여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특히 우리 진흥원 뿐만아니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 도에 청소년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청소년 정책연구원, 특히 세종시에 아주 충남도였던 지역에 와계시니까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이 해서 우리 좀 적극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첫 번째 안건으로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호 2014년도 사업실적 승인안에 대해서는 여러 이사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차후 금년 2015년 사업계획에 그리고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있으신가요?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결정 제2호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아까 일괄에서 제안을 드렸습시다만 이사님들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송태화

그 수입결산총괄에 보시면 예산에 있는 수입을, 지출결산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예산액의 수입과 지출이 서로 달라요. 또 하나는 작년 결산서에 보면 1회 추경에 보조금 반납액이 3천4백6십7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천5백십오만원으로 차이가 나는지.

수입의 예산액과 세출의 예산액이 같아야하는데 달라.

이재기행정지원실장 이재기

야 예 이게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사 송태화

또 한가지 보조금이 2015년도 추경에 세운 보조금하고 작년에 결산한 보조금하고 반납한 금액이 서로 달라가지고 혹시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사장 송석두

자 아니 실무자 잘아시는분 발언대에서 직접 설명을 하세요. 예 누군지 말씀하시고.

행정지원 팀장대리 남혜진

행정지원팀장 남혜진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2014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마지막 추경에서 예상했던 전 금액이구요, 14년도 지출예산 총괄에 의한 실제 저희 진흥원으로 들어온 통장에 찍힌 금액을 저희가 정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송이사님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요?

이사 송태화

예.

이사장 송석두

그러면은 실제 그 금액이 예산 세운거하고 실제 투입액하고 차이가 있었던 얘기네?

행정지원 팀장대리 남혜진

예 그리고 결산서에 있는 반납금액은요, 저희가 13년도 사업에 대한 잔액을 14년도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주신 금액은 13년도에 해당하는 반납금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결산서 중간에 보시면 명세서에 사업비 반환금액이라고 해서 잡혀있습니다. 이 금액이 14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5년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사장 송석두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사 송태화

예.

이사장 송석두

자 다른 이사님들 제2번째 안건인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의가 없음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결정 제3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바랍니다.

이사 박철웅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추경안에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운영 지원예산이 기존의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예산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네 활동진흥센터 박영의입니다. 네 저희 운영지원이 4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그 원인은 상근심사원이 지금 할당되어있어 사업비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200만원을 줄여서 거기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에 이사님들 지금 3번째 안건 추경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의 있으신가요?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의의가 없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사장 송석두

다음 4번째 의사결정 제4호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윤영우

음 신고지원팀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신고지원팀 업무가.

이사장 송석두

그건 다음 안건이에요. 지금 4호 안건이에요. 정관개정 안건이에요. 다음 안건에서 말씀 해주시기바라고, 지금은 4번째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민법 개정에 대한 용어 변경인가요?

이제기행정지원실장 이제기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의 있으신가요?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예. 의사결정 제4호 정관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결정 제 5호 직제 및 정원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우 이사님,

이사 운영우

이게 신고지원팀을 만드는데 이것이 저기 현장에 나가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팀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역할이 뭘지에 대해서 활동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만나와 있는거 같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박영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근심사원을 뽑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신고프로그램 되어있는 부분들 인증프로그램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평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안전센터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가 신고의무제가 되면서 그 신고의무제에 따른 행정적인 업무 처리라든지 신고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신고된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한사람 더 파견을 한 것입니다.

이사 윤영우

지금 그럼 이 두 사람이 팀장하고 팀원 두사람을 늘리겠다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두사람이 우리 일년에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을텐데 그걸 다 어떻게 카바할수 있는지.

이사 장기수(원장)

지금 이 안건은 두 사람은 이미 인력이 확보된 상태구요, 팀의 신설을 통해서 별도의 팀으로 신고지원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흥원에서 선발해서 1명을 내려주셨고요, 작년에 저희가 2명을 채용하라는 안전 관련된, 실무 관련된 1명을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2명이 계약직 직원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팀을 신설해서 팀장과 계약직으로 이것을 아예 전담부서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증원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팀 신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윤영우

프로그램 심사가 아니고 현장에 쫓아다니는 걸.

이사 장기수(원장)

심사도하고 점검도하고 지도 평가도 하고.

이사 박철웅

좀 제가 대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 신설과 팀원 증원은 작년엔 이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활동진흥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원 안에 청소년활동 안전센터가 본부에 설치되고 지금까지 많은 인증제 건수들이 있었고 심사원이 심사를 했습니다만은, 17개 시·도에 활동진흥센터가 지금 얼마 전까지는 미완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련활동 그 인증에 관한 업무가 활동진흥센터에 상시적인 업무였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이걸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인증심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질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중앙에서 심사할 때에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상근인증심사원을 이제 여가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신고제가 정착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된 것이고 여기서 인증심사원이 정말 잘해야되요. 보통 이제 심사원이 가서 현장에서 봐요. 보는데 상근심사원이 이것을 뭘 하는가하면 다른심사원이 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해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또 노. 이렇게 해서 본부에 올리는거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예 그거는 잘 운영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안건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사 일동

없습니다.

이사장 송석두

의의가 없음으로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여러 이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회의 계획상 한시간 반을 하자고 했는데 거의 한시간 내에 회의가 끝나게 돼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예. 우리 송태화 이사님, 하실 말씀.

이사 송태화

예. 종합적으로 한 가지 의견을 줌.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청소년진흥원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일을 어 돈을 28억이라는 돈을 쓰고 도비가 한 18억 국비가 조금, 대부분 쓰는 예산이 천안시를 위해 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진흥원이 도에 도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 진흥원이 내포로 간다고 했을 때 막상이 인력들을 다 어떻게 할 건지.

더군다나 여기에는 천안시는 여기 임대료에 좀 보고, 빼가지고 임대료 외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 여기있다고는 하지만 천안시장이 감내 해야할 부분을 도가 어찌보면 감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진흥원이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책기능을 가지고 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능으로 갈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되는지에 대해서 실지 여기다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잘 안나오다 싶어서 좀 별도의 용역을 줘서라도 아니면 연구팀을 만들어서라도 빨리 가시화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지금 8년 이상을 청소년진흥원이 재단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천안을 위해서만 있고, 아산 일부를 위해서만 있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성정책개발원, 또 별도의 청소년진흥원이 위기청소년만 관리하는 것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활동까지도 같이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져 있다.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이사님께서도 청소년진흥원을 위해서 출연금도 말해주시고 금년에는 돈도 많이 주셔서 직원들의 사



기도 많이 북돋아주시고 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서히 줌 체제를 강화시켜 주는 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은 줌 그렇다해서. 이런자리에서. 더군다나 출연금의 3억중에서 이자까지 한 5천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이자를 활용해서 빨리 단계적으로 시군에 내려주고, 또 이 사업을 진흥원의 사업을 국비 오른만큼의 매칭펀드를 시장군수에게 넘겨주면서 그 부의 재원을 여기에 다른 기능들을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재검토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이사장 송석두

재검토가 아니고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그런 맨날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마무리에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송태화 이사님께서 아주 정확한 좋은 지적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진흥원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처리는 끝났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선 회의가 계속되느라 과일을 좀 드십시오. 이거 테이블 위에 올라온 과일은 못먹고 또 버려야 합니다. 드시고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서서 결석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송태화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가 아니고 지금 파일을 키워서 나눠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은 없냐, 또 하나는 전달체제에 있어서 전달비용에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청소년과 관련해서 국가차원에서 쓰는 돈은 백억원인데, 실제 청소년에게, 실제 청소년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십억, 이십억에 불과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청소년근처에, 언저리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종사자들의 인건비, 이벤트, 그리고 관련 부대비용 이런 것 들이 뜨고, 실제 전달비용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송태화 이사님 말씀하신 것이 이 청소년진흥원이 만들어져서 도가 해야 할 정책제안이 있고 연구적인 기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활동하는 것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전담인력이라고 하나요? 비용을 과감하게

시·군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지출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현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도에 청소년진흥원은 정책기능이라든지 연구기능, 15개 시·공통적으로, 내지는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또 한번 둘러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일단 이 지금 진흥원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 진흥원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 작년도 사업세부실적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원가인식이랄까? 원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 기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아니면 가끔 수탁사업을 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먹고사는 것을 위해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성을 가지고 하고 민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을 확실히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해야 하고, 그것이 아까 송태화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도와 시·군이 중첩되지 않게, 그리고 꼭 전문성 있게 활동의 실체가 나타날 수 있게. 이게 바로 자문이라든가 이런 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 진흥원은 적어도 그런 시 시스템적인 고민을 도나 중앙정부와 연결해서 진흥원도 참여를 하겠습니까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편성된 예산과 인력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서 우리 이종원 이사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습니까만은 여러 이사님들과도 수시로 교류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거세계 살 것 같아요. 거세계. 이런 공공부분의 내부적인 조직 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과 조직가치와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조직과 인력, 또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정이 불가피한, 지금대로 나름대로 정당성은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어서 뭐 공무원이라는 공조직을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루트만으로, 절차상으로 합리성이 보장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2차, 3차적인 고민을. 사회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그러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퀄리티 있게 해야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이사 박철웅

네, 이사장님 말씀이 참 그 공감이가고, 세겨 듣고 또 모든 사업과 정책방향성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제 해석으로는 이것이 제2차 공공관심사의 핵심 같습니다. 이런거죠. 어느날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여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없애겠다 했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민간이어야 하고 또 진흥원 산하에 있는 시군구 지원센터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흥원 없어지니까 참 좋다. 그 예산 우리한테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개들 뭐했어.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질문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없어진다 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걸 방어를 해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빨리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민간부분과 경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제일 척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방안들을 계속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지금 보면은 시·청소년 지원센터도 모델을 진흥원 중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학교밖 지원센터도 또 시군구로 가잖아요. 이것도 지금 모델로 합니다. 충청남도에 있는 청소년시설,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전파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정책의 전달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 좀 방향을 맞추고 일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 이사장 송석두

예. 감사합니다. 또 같이 고민해주실 부분이고 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 박철웅 이사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같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사회에서 얘기한 사항, 해당부서와 여기 이사님들이 말씀해주신 사항, 본안대로 의결이 됐습니다만은 이사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피드백을 하셔서 반영을 하셔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잘 운영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이사님들과 공유를 해서 하시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사님들 중에서 말씀을 안해주신 분들도 오



늘만이 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사님들 분야별로 독자적인 전문분야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꼭 이사회라는 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문이랄지, 조언을 통해서 청소년진흥원이 고민하는 것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 이사 고옥심

예 제가 편안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교육청 사업들과 상당부분 유사해서 중복된 그런 사업들이 많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질 높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사장 송석두

예.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전체로 보면 고옥심 이사님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이지 않습니까. 나를 잘 살게 해주면 그 행정기관이 누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와야 할 것이 다 오지 않았다. 위에서 물을 많이 부었다는데, 나한테 오늘 것은 쭉쭉쭉 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부에 공공기관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결국 중첩되어 좋은 일도 있지만 중첩되지 않고 차별화해서야 이 진흥원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이 뭔가. 그 계층은 누구일 것이냐. 거기에 도라면 정책기능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직접 집행 하면서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식으로 가면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저 나열식으로 다른 기관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다보면 끝도 없이 성과를 묻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자는 취지고요. 같이 이 공공부문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 또 오늘 이사회에 참여를 하신 민간에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이사 송경(김혜원 이사 대행)

예 그 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관심사가 어 자유학기제가 이제 어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청소년 관련 분야가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 천안 같은 경우는 18개 학교가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상당부분 이제 그 함께 학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인증제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학교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그 인증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인증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도 또 시행이 되고. 저는 이 자유학기제가 청소년기관에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 듯이 함께 좀 고민해서 수련시설들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사 고옥심

예. 그 체험학습에 대해서, 거의 다 그 체험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진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가 자유학기제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증되어있지 않은 그 교육청에서는 체험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받은 기관에 한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여러 가지 체험을 해서 본인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또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까를 고민을 해주시면, 인증을 받으시고 하시면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사 박철웅

이사장님 또 제가 한 말씀.

이사장 송석두

네.

## 이사 박철응

너무 이제 좀 차가운 비판과 또 질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외부에서 전국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충남 청소년진흥원이 최고입니다. 상담이든 활동이든 최고의 지표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진흥원임을 또 인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진흥원이 뭐 정부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최고의 진흥원으로 잘 가고 있는 이유가 이사장님 이사님들이 또 이런 고견과 이런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사장 송석두

예. 하여간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전체 의제로 남아야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요기 교육청에서도 와 계십니다만 특히 기초 지자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추후에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이사회 안건으로, 진흥원에서 구체화시켜야 할 부분인지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사님들 굉장히 감사하고 특히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님들, 여러 이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듣기에 경우에 따라서 거슬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시 고민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